

현대차, 11년째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후원

국내 문화예술 활성화에 앞장

현대자동차그룹이 11년째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축제 지원을 이어나가며 국내 문화예술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제11회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을 공식 후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은 전국 문화예술 관계자와 제주 시민, 관광객 등 약 1만2000여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예술 축제다. 지난 2008년부터 개최돼 올해 11회째를 맞이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행사에 '전국 대학생 연극뮤지컬 페스티벌(옛 H-스타페스티벌)' 수상팀 출신 예술가 4명을 초청해 오프닝 축하 공연을 진행하고 '현대차그룹과 함께하는 제주인(in) 페스티벌'에 참여해 제주 주요 관광 명소 12여개소에서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예술 등 총 50회의 다양한 공연을 지원할 예정



18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 야외 정원에서 열린 '제11회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개막식 오프닝 공연. /현대자동차그룹

이다.

이 외에도 국내외 전문가들이 문화예술계의 현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예술포럼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마련해 국내외 문화예술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내 문화예술 활성화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9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백혈병 환우들을 위한 사랑나누기-산은가족 헌혈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KDB산업은행

KDB산업은행

백혈병 환우들 위해 헌혈증서 기부

KDB산업은행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백혈병 환우들을 위한 사랑나누기-산은가족 헌혈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여한 헌혈 캠페인을 통해 생명의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혈액수급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헌혈 캠페인을 통해 기증된 헌혈증서와 2000만원의 치료비 후원금을 혈액부족 및 고액의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혈병 환우들을 위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2005년도부터 매년 헌혈 캠페인과 백혈병 환우 돕기 행사를 통해 13년간 1500여매의 헌혈증을 기증해왔다. /안상미 기자 smahni@

G마켓 "택배기사님, 스마일 도시락 드세요"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이 내달 5일까지 택배기사 응원 이벤트로 '스마일도시락 캠페인'을 진행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 끼니를 거르는 택배기사들에게 고객이 직접 작성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도시락을 전달하는 내용이다.

고객 참여형 캠페인으로 7월 5일까지 G마켓 행사 페이지에 택배 기사들에게 보내는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이렇게 모인 고객 메시지는 약 3주동안 택배기사들에

게 개별적으로 전달되며 이메일코리아 무인택배함 '스마일박스'에 배송을 완료한 전체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택배 기사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편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GS25 도시락 e쿠폰이 함께 전달된다.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캠페인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e쿠폰을 증정한다.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광고 영상도 공개했다. '택배기사님, 스마일 도시락 드세요' 영상 속에는 매일 시간에 쫓겨 빵이나 김밥 등으로 한끼를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택배기사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캠페인을 통해 응원의 메시지와 도시락을 전달 받은 택배기사의 모습을 미리 만나볼 수 있어 감동을 더했다.

G마켓은 2014년 '택배기사님 택배왔어요' 광고를 시작으로 2015년 '택배 트럭의 회춘' 등 택배 기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국무역협회 '중장년 전문인력 채용박람회'

한국무역협회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장년 전문인력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박람회에는 수출기업 24개사를 포함해 총 50개 기업이 참가하며 특히 협회가 주최한 채용박람회로는 처음으로 일반기업 6개사가 부스를 차렸다.

이들 기업들은 해외 마케팅, 법인장, IT, 통관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273명의 중견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구직자들은 이력서를 지참해 박람회장을 방문하면 기업과 1대1 현장면접을 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오늘의 운세 6월 20일 (음 5월 7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라. 60년생 지고도 이기는 것이 있으니 때로는 저주는 것도 한 방법. 72년생 조금힘이 화를 부른다. 84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날이니 휴식이 필요하다.
- 소** 49년생 떠나기도 어렵고 머물기도 어려운 하루. 61년생 사소하게 시작된 언쟁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 73년생 총연도 사람을 봐 가며 따라야 하는 법이다. 85년생 손님이 오니 즐거운 소식을 듣고 오너구나.
- 호랑이** 50년생 남동쪽으로 역마의 운이 있다. 62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마음이 불편한 하루가 되겠다. 74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서 일을 추진해보라. 86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 토끼** 51년생 공들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63년생 보기 싫던 사람도 아쉬울 때가 있는 법이다. 75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해도 무리가 없는 날. 87년생 주변 사람과의 의견 차이로 약간의 손해가 있을 수 있다.
- 원숭이** 52년생 빌려준 돈이나 선물이 들어오는 날. 64년생 과한 운동을 삼가고 심신의 안정을 취해야 한다. 76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특히 친구와의 대화에 주의. 88년생 큰 그림을 그리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 뱀** 53년생 외출을 삼가고 건강관리에 신경 써라. 65년생 내 것이 작아 보이니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 77년생 때가 왔으니 힘껏 정진하라. 89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여주니 아랫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라.

- 말** 54년생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온다. 66년생 용띠, 닭띠와의 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78년생 중심을 잘 세워야 원망을 듣지 않는다. 90년생 남의 부러움을 사나 실속은 많지 않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
- 양** 55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친구가 위로를 주는 날. 67년생 노력의 결과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다. 79년생 고집을 세우면 식구도 외면하는 법. 91년생 두가지가 다 좋을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 원숭이** 56년생 가뭄이 해결되듯 일이 술술 풀린다. 68년생 사공이 많아서 의견통일이 어려워니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80년생 유쾌 상쾌한 날이다. 92년생 일이 어려워나 부모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해결된다.
- 닭** 57년생 매화가 피었다고 겨울이 끝난 것은 아니다. 69년생 우물니 곁에 있어도 두레박이 보이지 않으니 담당. 81년생 부모님의 안부를 챙겨야 하는 날. 93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지자.
- 돼지** 58년생 자손의 방문으로 하루가 즐겁다. 70년생 상대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면 나에게 돌아오니 말조심. 82년생 뒷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자. 94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돼지** 59년생 힘들어도 끝까지 가봐야 결과가 좋다. 71년생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운 날이니 도장을 찍을 때는 신중히. 83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자중자재. 95년생 숨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날.

김상회의 四季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는 너무도 잘 알려진 금언이다. 발명의 왕이라 불리는 에디슨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는 말로 자신에 대한 찬사에 겸손히 답하였다. 그만큼 성공이란 것은 무수한 실패를 기반으로 한다는 의미이리라. 실패가 주는 교훈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인가, 어느 작가는 실패 때문에 얻게 되는 '여유로운 시간'은 실패가 주는 보너스 선물이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최종의 성패가 갈리는 것이라 얘기했다. 즉 실패했다고 낙담하는 것이 실패인 것이지, 실패를 발판 삼아 다시 딛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실패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실패란 단어가 없다."고 말한 뜻이 바로 이것이리라. 강태공 역시 주문왕의 눈에 띄기 까지 그의 삶은 실패로만 보였다. 그는 남달리 눈에는 하릴 없이 물가에 앉아 잡히지도 않는 고기를 낚는 정신 나간 노인쯤으로 보였음이 분명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낚시대는 낚시대늘이 없었다는 설도 전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나는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낚는 것이라 대답한다. 천하를 주유하던 중에 이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긴 주문왕 역시 강태공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아차렸다. 강태공 역시 주문왕과는 뜻이 부합됨을 알고는 국운이 기운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세운다. 강태공이 주문왕을 만난 때가 그의 나이 팔십쯤이었다고 회자되고 있다. 때를 읽을 줄 알았던 그는 인연 닿는 군주를 만날 때까지 낚시 바늘 없는 낚시대를 들고는 부국강병의 지혜와 통찰력을 쌓고 있었다. 일설에 의하면 그는 신선이 되기 위해 복이(服餌)라고 불리는 식사요법에 힘을 쏟아 2백년쯤을 더 살았다는 말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틀어볼 때 그는 천지음양의 원리와 조화를 아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 위수 가에 앉아서 낚시대를 드리우고 통찰한 것은 우주와 천지만물의 기운의 흐름과 운용에 대한 직관과 통찰이었을리라. 시운을 읽고 때를 아는 사주 명리학은 그저 있는 현상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족한 점을 메워나가기 위한 통찰지혜를 얻고자 함이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그에 맞게 요긴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내 운명의 기호가 흑여 불운하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는 것이며 마음구조의 변경, 그의 실행을 통한 개운까지도 가능케 하는 생활의 학문이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9	5			
			8		6			
4			3	5	1			6
	4	9				1	8	
6	2				4			5
	5	8				6	9	
8			5	3	9			1
			2		4			
		1		7		2		

			8				3	
	5	2	4			3	1	7
1								4
7	6			9			8	3
			6		1			
8	2			7				5
6								9
		9	3	7		2	8	1
		4					5	

스도쿠 정답

4	5	2	8	9	1	6	3	7
6	8	7	1	3	9	4	5	2
1	9	4	6	5	2	7	8	3
8	6	9	7	1	8	5	4	3
5	1	8	4	6	9	2	7	3
2	8	1	5	9	4	6	7	3
9	7	6	1	5	2	8	3	4
1	3	8	9	7	4	5	6	2
8	1	5	2	6	7	4	9	3
9	1	8	7	3	4	5	6	2
6	7	3	8	5	1	9	4	2
1	5	9	4	6	2	7	8	3
2	6	1	8	9	5	4	7	3
8	7	6	5	6	2	1	9	4
8	1	5	9	7	4	2	6	3
5	9	6	2	1	8	4	7	3

문제 제공= 보너스